쟁점사항 합의 불발…파업 시 '의료 대란'

광주·전남 14개 병원서 5,100명 의료 인력 참여
간호사 등 이탈로 코로나19 병동 진료 차질 예상

민주노총 광주본부·광주진보연대 등 24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31일 오후 조선대병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시설·장비·인력 구축 등 정부의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 인력 처우 등의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31일 민노총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2일 파업이 진행될 경우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11개, 3개 병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고된 파업이 실제로 이뤄지면 코로나19 치료 등 의료 현장에서는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에 동참한 병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 7곳(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보훈병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목포의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7개 병원에는 149명(전남대병원 9명·빛고을전남대병원 42명·조선대병원 9명·광주보훈병원 9명·강진의료원 39명·순천의료원 28명·목표의료원 13명)의 코로나 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파업을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은 정상 가동되지만, 코로나19 치료 일반병상을 비롯해 대부분의 병상에서는 인력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됨에 따라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인력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병원에 남아있을 인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탓에 파업 당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선별진료소 인력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지 않아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선별진료소 인력이 파업에 대거 참여할 경우 진단검사 지연 등으로 방역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복지부와 제12차 노정협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관련 8대 핵심 요구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했다.

이날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24개 시민사회단체도 오후 조선대병원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공공의료의 현실은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요구에 임시방편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했다.

이에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노정협의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며, 총파업 전까지 협상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견이 있는 5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는 보건의료 현장의 여러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진정성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합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오늘부터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

중진공 호남연수원 경증 확진자 98명 수용 가능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마련했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원 인력과 시설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곳은 2인 1실로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 98명(49실)을 수용할 수 있다.

센터에는 의료진, 행정 인력 등 지원단 21명이 상주한다.

광주에는 110병상을 갖춘 소방학교 생활관에 이은 두 번째 생활치료센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가동률이 60%를 넘은 지자체는 추가로 시설을 개소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방학교 생활관에서 운영 중인 광주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달 30일 기준 92명이 입원해 18병상만 남았다.

광주시는 나주 한전KPS 인재개발원, 강진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에도 일부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4차 대유행 속에 광주에서도 주로 무증상이나 경증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연일 2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생활치료센터 평균 가동률도 70%를 넘어섰다"며 "안정적 병상 관리,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의 지원 협조 요청을 받은 북부경찰서는 정재윤 서장이 지난 달 30일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생활치료센터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영단의 지원 시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평상시에는 석곡파출소장 책임하에 격리시설을 1일 3회 순찰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초동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격리자 이탈 등 상황이 발생하면 12명 규모의 경찰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신속한 지원을 펼친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광주 제2호 생활치료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항소심 '감형'

징역 12년→10년…"피해자 합의 고려"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납치해 집에서 성폭행하거나 범행을 도운 택시기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A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강간방조·간음약취방조)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B씨(24)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다만, 이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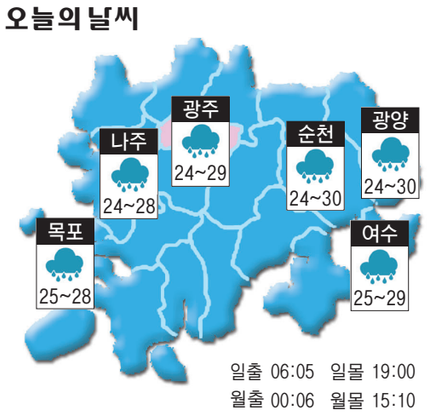
광주시내에서 활동하는 택시기사이자 동료 사이인 A씨와 B씨, C씨(38)는 지난해 10월9일 새벽 여성 승객을 태운 뒤 한 주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을 저지르거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폰에 설치된 다자간 통화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공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이유로 A씨와 B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했다.

원심 당시 다투던 세부적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최환준 기자

오늘의 날씨



일출 06:05 일몰 19:00
월출 00:06 월몰 15:10

장 성		24~29	흑산도		24~29
담 양		24~29	구 례		24~30
화 순		24~29	곡 성		23~29
영 광		24~29	완 도		25~29
함 평		24~29	강 진		24~30
무 안		25~28	장 흥		23~29
영 암		24~29	해 남		24~29
진 도		25~28	고 흥		23~29
신 안		24~28	보 성		23~29

목포	만조 08:17 21:38 간조 02:56 14:00	여수	만조 03:07 17:29 간조 10:02 --:--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야간산행 중 길 잃은 남성 2명 구조

고흥군 거금도에서 야간 산행을 하던 남성 2명이 길을 잃고 해안가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지난달 31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23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의 한 야산에서 생물자원 연구용역을 수행하던 A씨(67)와 B씨(57)가 산에서 내려오던 중 길을 잃고 해안가에 고립됐다.

산에서 내려오던 B씨는 A씨가 보이지 않자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해안가 절벽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 합동 대응에 나섰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40여분만에 해안가에서 불빛을 발견했다.

구조대는 수심이 낮아 구조정의 접근이 어려워지자 구조용 보드를 이용해 해안에 접근했고 A씨를 구조했다. B씨도 A씨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해안가에 고립됐으나 해경구조대에 의해 10여 분만에 구조됐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도난 수사

새벽시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도난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새벽 4시45분께 남구 방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K7 차량이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 A씨가 내부에 열쇠를 두고 하차했고, 이를 목격한 한 남성(추정)이 차량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민빈 기자